

물이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 47:1-12

교회 설립 45주년이 되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지난 45년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퀸즈장로교회의 45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진 표지는 부흥입니다. 퀸즈장로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에는 언제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고전 1:26,27)** 하나님은 질그릇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45년 동안, 때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난날의 부흥에 안주하고 있으면 교회는 곧 식어져 쇠퇴할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계속 가야 할 방향을 일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 주십니다.

1. 물이 솟는 교회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물이 스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겔 47:1,2)** 교회는 물이 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이 솟는 교회란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물이 솟지 않으면 메마른 교회가 됩니다. 답답한 교회가 됩니다. 죽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흐르고 또 흘러야 합니다. 강단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강단에서 물이 솟아 흘러야 합니다.

성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성령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진리의 말씀을 마시지 않고서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일리아’입니다. **(요 7:37~39a)** 코일리아= 배, 속사람

코일리아는 육적으로 배이지만 영적으로 속사람을 지칭합니다. 속사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속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솟구치지 않으면 그 속사람의 자리는 마귀의 차지입니다.

(롬 16:17,18)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할 때도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코일리아를 주도하지 않으면 코일리아는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리,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가 됩니다. 성령께서 점령한 코일리아나, 마귀가 점령한 코일리아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을 때 성도의 속사람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물이 솟는 교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이 생수의 샘이 되게 하소서. 예배에 나온 자마다 강단에서 흐르는 샘을 마시고 그 자신의 속사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각 교우, 부서에서 생명수가 솟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속사람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예배와 구역예배에 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구역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이 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깊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더 깊이 있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겔 47:3~5)** 여기서 에스겔이 물, 곧 성령의 체험을 밭목, 무릎, 허리까지 체험하다가 마침내 깊이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이 솟는 교회 일 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1 -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더 깊이 있는 예배, 깊이 있는 찬양,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묵상, 깊이 있는 헌신, 깊이 있는 훈련 등 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깊어지려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이 있는 삶과 사역이 따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그의 삶과 사역은 더 아름다워지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전 15:8) 만삭 되지 못한 자, 덜 떨어진 자와 같다고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엡 3:8) 위대한 사도라고 스스로 말해도 될 터인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딤후 1:15) 그의 자아인식이 더 깊어졌고 인격의 향기는 더 짙어졌고 사역의 열매는 더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깊이 깨달으면 다르게 삽니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난 손흥민, 넌 그냥 너” 영국 축구 1부 리그에서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자아인식은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저씨들과 다릅니다. 동네 조기 축구회 아저씨들은 연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다르게 연습해야 하고 최고의 프로축구 선수답게 뛰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기 이름에 대해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깊은 인식을 한 것입니다.

성도는 점점 더 겸손이 깊어져야 하고 교회는 점점 더 낮아져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이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야 하고 교회는 자기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삽니다. 상처 받을 일이 생겨도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깊이 있게 예배드리고 깊이 있게 헌신합니다.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깊이 있게 용서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합니다. 깊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멀리 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물이 솟는 교회, 깊이 있는 교회, 그리고 멀리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겔 47:8,9)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면 안 되고 멀리 가야 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즈음 교회마다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처럼 살기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러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323장 1,2절)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성령의 교회는 땅 끝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Kidult = Kid(아이) + Adult(어른) 애어른을 말합니다. 45세이면 중후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무책임하고 현실 도피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민족에게도 가야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가야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도 가야하고, 열방으로도 가야 합니다. 가서 살려야 합니다. 키덜트가 되면 안 됩니다. 멀리 가야 합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잘 갈 수 있습니다. 45주년의 부흥에 안주하지 맙시다.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물이 솟는 교회, 깊이 있는 교회, 멀리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퀸즈장로교회의 지난 45년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2. 물이 솟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3. 바울이 자기 인식이 깊어지면서 얻게 된 그의 삶과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4.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오늘 교안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